

2020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새 언약

메시지 2

노아에 관하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언약

성경: 창 6:5-9, 9:8-17, 빌 2:12-13,
계 4:3, 겔 1:26-28, 고전 1:30, 마 24:37-41

- I. 주님의 오심(헬라어로 파루시아, 임재를 의미함)은 주님의 백성에게 있는 그분의 임재가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시기 전의 상황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 마 24:3, 37-41.
- A. 노아의 때에는 다음과 같은 상태였다. (1)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정신을 빼앗겼고, (2) 홍수가 나서 그들을 휩쓸어 갈 때까지 심판이 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 B. 주님의 파루시아가 일어나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현재 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정신을 빼앗길 것이며, (홍수로 상징된)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께서 나타나심으로 그들 위에 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 C. 그러나 믿는 이들은 마취에서 벗어나 깨어 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부패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해 오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D. 세상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들에 정신을 빼앗겨 다가오는 심판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동안, 주님께서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는 일부 믿는 이들을 데려가실 것이다. 이것이 휴거이다. 이것은 정신이 없고 감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징조가 될 것이다 — 비교 행 26:16, 딤후 4:7-8.
 - E. 이기는 이들의 휴거에 참여하여 주님의 파루시아를 누리고 대환란을 피하려면 우리는 오늘날 사람의 생활에 정신을 빼앗기게 하는 것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파루시아(임재, 오심)의 누림 안으로 휴거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무분별한 생활로 그들을 무감각하게 하는 영향력을 이기라고 명령하신다 — 마 24:40-41.
 - F. “여러분은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여러분의 마음이 억눌려, 그날이 덧과 같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닥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간구하며 항상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 눅 21:34-36.
 - G. “누구든지 자기 혼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 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 생명을 잃으면 혼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든지 빼앗긴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 눅 9:24-25.
 - 1. 사람들이 세상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히 세상이 그들의 혼을 위한 오락을 제공하기 때문이지만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그분의 증거를 위해서 우리는 현 시대에서 기꺼이 혼의 누림을 잃어야 한다.
 - 2.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오락을 필요로 하도록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오락은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어야 한다. 하나님 자신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유희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키신다.
 - 3.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혼을 통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과 오락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행복과 유희는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어야 하며 이 하나님은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주관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받아 들이고 하나님을 사는 것이 사람의 즐거움이다 — 빌 2:5, 1:8, 2:2, 13, 시 16:11, 36:7-9, 43:4.

II.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앞에 은총(혹은 은혜)을 입었다” — 창 6:8.

- A. 노아의 생활과 일은 은혜가 타락한 백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를 계시한다. 은혜는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 곧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신 놀라우신 그리스도이다 — 창 6:1-14, 마 24:37-39, 고후 12:7-9.
1. 육체는 마귀의 임재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우리가 사탄의 임재를 대응하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 — 창 6:3, 8, 롬 7:17-21, 히 4:16, 고전 15:10.
 2. 은혜의 결과는 의이다. 은혜의 힘과 은혜의 능력과 은혜의 생명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고 서로에게 올라갈 수 있으며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도 올라갈 수 있다 — 롬 5:17, 21, 벧후 2:5.
- B. 노아는 신성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했고 방주를 건축했다 — 창 6:8-22, 히 11:7, 벧전 3:20-21, 마 16:18.
1. 성경에서 하나님의 첫번째 건축물은 노아의 방주이며, 이 방주는 하나님과 사람의 건축물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건축물은 하나님-사람이다 — 요 1:14, 2:19, 고전 3:9, 16-17, 계 21:2, 22, 엡 2:22, 시 27:4.
 2. 방주의 건축은 건축 재료이신 그리스도의 풍성들을 요소로 한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을 예표한다 — 마 16:18, 고전 3:9-12 상, 엡 3:8-10, 4:12.
- C. 노아가 건축한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으로서 실질적인 현재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방주를 건축하는 것은 우리의 체험에서 그리스도를 건축하는 것, 곧 단체적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 빌 2:12-13, 비교 빌 4:13, 요 14:30, 롬 1:9.
1.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려면 자신의 상상력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신성한 지시에 따름으로써 방주를 건축한 노아의 본을 따라야 한다 — 창 6:9, 15 상, 히 11:5-7.
 2.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려면 하나님의 유일한 일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해야 한다 — 고후 6:1 상, 고전 15:58.
 - a. 사역의 유일한 한 가지 일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하여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 안으로 공급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존재 안으로 건축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 창 6:14, 고전 3:6-12.
 - b. 방주의 세 층은 우리의 체험 면에서 본 삼일 하나님을 상징한다(창 6:16). 아래층은 그 영을 상징하는데, 그 영은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를 아들로 이끄신다(벧전 1:2, 요 16:8, 13-15). 그리고 아들은 우리를 더 높은 체험 안으로 이끄시어 결국 아버지께로 이끄신다(요 14:6, 엡 2:18, 요일 1:5, 4:8).
 - c. 우리가 아버지께 갈 때 우리는 '삼층'에 있다 — 눅 15:4-10, 18-23, 엡 2:18.
 - d. 우리는 삼일 하나님과의 가장 깊고 가장 높은 친밀성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를 '삼층'으로 이끄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비밀들과 비결들과 감추인 보배들을 보여 주실 수 있다 — 요 1:14, 16-18, 요일 1:3, 5, 4:8, 16, 고전 2:9, 고후 2:10, 출 33:11.
- D. 방주의 삼층에 오직 하나의 창문이 하늘을 향하여 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건축물인 교회 안에는 하나의 신약 사역을 통해 주어지는 오직 하나의 계시와 하나의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창 6:16, 행 26:19, 잠 29:18 상, 딤펢전 1:3-4, 고후 3:6-9, 4:1.
1. 매 시대마다 그 시대의 이상이 있으며 우리는 그 시대의 이상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직 하나의 이상만을 주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 행 26:19, 엡 1:17, 3:9.
 2. 매 시대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모두 그 시대에 부응하는 이상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 행 15:35-39, 18:24-25, 19:1-2, 21:18-21.
 3. 지난 세기 동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으켜졌지만 각 사람이 붙잡고 있는 이상의 정도가 달랐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 안에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이 본 이상의 정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한마음 한뜻이 없었다.

4. 성령께서 전진하실 때 몇몇 사람은 성령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어떤 이들은 머무는 것으로 결정했다. 성령께서 더 전진하실수록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 줄어든다.
5. 우리의 이상이 최신의 이상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잠 29:18 상.
6.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현 시대의 하나님의 사역의 필요에 부응하는 동역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E. 방주는 개인적인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몸이자 새 사람인 교회의 예표이기도 하다 — 벰전 3:20-21, 마 16:18, 고전 12:12, 엠 2:15-16, 골 3:10-11.

1. 노아는 방주를 건축하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홍수를 통한 악한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그 세대로부터 분별되어 새로운 시대 안으로 인도되었다 — 창 6:5-22.
2.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인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대환란을 통한 악한 현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이고 이 세대로부터 분별되어 새로운 시대, 천년왕국 시대 안으로 인도받을 것이다 — 마 24:37-39, 눅 21:36, 계 3:10.

III.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언약에 대한 징표인 무지개는 우리가 은혜의 새 언약의 실재 안에 살고 있는 언약의 교회임을 상징한다 — 창 9:8-17.

- A.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땅에 대해 그분의 심판을 집행하시면서도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신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상징한다 — 계 4:3, 겔 1:26-28.
- B. 무지개의 주요한 세 가지 색깔은 파란색(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남보석으로된 보좌의 색 — 겔 1:26, 시 89:14)과 붉은 색(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거룩하게 하는 불의 색 — 겔 1:4, 13, 27, 히 12:29)과 노란 색(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빛나는 호박금의 색 — 겔 1:4, 27, 히 1:3)이다.
 1.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의 요구들을 만족시키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의와 거룩하게 함과 영광이 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 — 창 3:24, 고전 1:30.
 2. 의와 거룩과 영광의 무지개로 상징되신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시다 — 사 42:6, 히 8:10-12.
 3.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는데, 그 지혜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의와 (우리가 우리의 혼 안에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한)거룩하게 함과 (우리가 우리의 몸 안에서 변형되도록 하기 위한) 구속으로 전달하신다 — 고전 1:30, 롬 8:10, 12:2, 8:23, 엠 5:25-27.
 4. 영원 안에서의 새 예루살렘(무지개의 외양을 그 기초로 가지고 있는 성 — 계 21:19-20)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것처럼 우리를 그분과 똑같이 만드시는 그분의 새 언약을 수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언하는 무지개가 될 것이다 — 계 21:10-11.
 5. 이 무지개의 영적 실재는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 —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영광의 광채의 불이 우리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완전한 기회를 드림으로써 그분의 의로운 임재로 우리를 채우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 고전 1:30.
- C.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죽음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지키심에 대한 그분의 신실함의 표징이다. 우리는 어떤 실패나 약함이나 부정적인 것을 믿지 말고 반드시 새 언약 아래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언약을 가진 백성이며 우리에게는 모든 상황을 충족시키기 위한 약속의 말씀이 있다 — 애 3:22-23, 롬 8:1, 고후 12:9, 딤후 1:10, 2:1, 유 24, 요일 1:9, 고전 1:9.

IV. 노아의 생활과 일로 예표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약의 모든 실재들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졌다 — 비교 창 6:13-16, 요 10:28-29, 벰전 3:20-21.

- A. 방주의 안과 밖에 칠해진 역청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 언약의 피를 예표하며 역청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 자신 안으로 인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주입을 받아 그분의 증거가 되도록 한다 — 창 6:14, 출 24:8, 마 26:28: 시 27:4.

- B. 노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은총을 받은 것과 똑같이 우리는 시대를 전환하기 위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실재 안에서 살며 수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 창 6:8.
1. 새 언약 아래서,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를 통해 우리는 성령과 은혜의 영과 간구의 영에 참여하는 이들이 된다 — 히 6:4, 10:20, 속 12:8-10, 고후 12:9.
 2. 노아처럼 우리는 (사랑을 통하여 운행하는)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 우리의 주관적인 의이신 그리스도를 살아 내야 한다 — 창 6:9 하, 7:1, 히 11:7, 롬 5:2, 갈 5:6, 빌 3:8-9.
 3. 날마다 우리는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채워 주시는 것을 허락해 드려야 한다 — 롬 5:17, 시 68:19, 갈 6:17-18.
- C. 노아가 방주를 건축하는 시대의 이상과 시대의 사역을 가진 것과 똑같이 우리는 단체적인 그리스도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시대의 이상과 시대의 사역을 가져야 한다 — 창 6:14-16, 엡 4:11-12, 빌 2:12-13.
- D. 홍수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새로운 영역 안에서 하나님 아래 있는 대표 권위인 노아와 함께 살았던 것과 똑같이 우리는 반드시 왕국의 훈련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면서 부활 안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은 복종의 생명이다 — 창 8:4, 18, 빌 2:5-11.